

'제회 갤러리'



문화공간 '인사이드'



공방이... 갤러리가... 광주 구석구석 열린 문화공간 '쑥쑥'

작년 신생문화공간 12곳 오픈... 광역시 중 최다

동구 푸른길 인근 갤러리·작업실 속속 문열어

“애포문화전당 개관... 문화인프라 크게 증가할 듯”

미술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주에는 전국 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문화공간이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개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0월 문화전당이 완공되면 광주시 동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화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김달진미술연구소(소장 김달진)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전국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신생 문화공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12곳의 새로운 전시공간이 생겨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모두 166곳의 전시공간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지난 2012년 182곳보다 16곳이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곳으로 가장 늘었고, 경기도 24곳, 전북·전남 17곳, 부산 11곳, 대구 7곳, 대전 3곳, 울산 1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1년 176곳, 2010년 144곳, 2009년 99곳 등 최근 10년간 새로운 전시공간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는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는 분석했다.

반면, 광주는 지난 2011년 9곳, 2012년에 모두 14곳의 공간이 생기는 등 해마다 문화공간들이 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와 인근 푸른길 주변에 문화공간은 물론 기타 인프라 시설 등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또 오는 3~4월께 동구 푸른길 일대에 갤러리와 공방 등 3~4곳과 작가들의 작업실이 새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가 추진중인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도 문화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는 푸른길 공원을 중심으로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3개 거점 지역의 공·폐가를 리

모델링해 작가들의 작업실이나 주민들의 공방, 인문학 학교,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만들어 주민교류와 문화향유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동구는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빈집이나 폐가를 유·무상으로 빌려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최근 이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신탁센터를 만들고 있다.

김달진 소장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인근에 갤러리 등 문화공간은 생겨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광주도 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내년에 본격 개관하면 그 시너지 효과로 문화전당 일대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상욱 광주미술협회장장은 “개인도 좋지만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작가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무료 기획전과 초대전 등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화전당 인근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만들고, 오픈스튜디오 등을 통해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면 동구 일대에 새로운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삶에 문화 더하기’ 올해도 함께 합니다



최미연 작 'in my city'

‘열두 개의 희망’ 갤러리 아크 신년기획전

감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지역작가 12명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을 어떨까.

갤러리 아크는 신년기획으로 2월8일까지 ‘Douze espoir-열두 개의 희망’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남구·김유섭·문명호·송필용·오경규·유수종·이정록·전현숙·진원장·최미연·한희원·허진씨 등 지역작가 12명이 초대됐다. “한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바람처럼 다채로운 12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가 12명의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것이 기획자의 말이다.

작품들은 회화 중심으로 새해의 시작과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올해 캘린더로 제작됐다. 문의 062-671-123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웅휘·이효주 듀오콘서트

김영옥·김다솔 듀오연주회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



김다솔

조진주

유·스퀘어문화관의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는 지역민들의 문화갈증을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특히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클래식 스타들의 초청 공연은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지난 한해 250건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 12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올해는 어떤 행사를 만날 수 있을까.

클래식 전용홀 ‘금호아트홀’은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연주자들의 초청 무대를 선보인다.

화이트 데이인 3월 14일에는 ‘노보스 콰르텟’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문웅휘와 피아니스트 이효주의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4월에는 지난해 윤이상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며 무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를 만날

수 있다.

한편기에는 ‘노보스 콰르텟’ 멤버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듀오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금호아트홀상주음악가로 활동했던 김다솔은 오는 2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협연을 앞두고 있다.

또 연말에는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가 다시 한번 광주를 찾는다. 그밖에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 ‘통통클래식놀이터 시즌 6’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식 So Cool II’는 올해도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오는 2월 27~28일 오디션을 통해 연주자를 선발하며 7~8월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유·스퀘어문화관의 대표 기획인 ‘Good 공연 시리즈’는 올해도 동산 아트홀에서 계속된

다. 올해 첫 작품은 오는 2월 1일부터 한달간 공연되는 로맨스 힐링 콘서트 ‘우연히 행복해지다’다. ‘Good공연 시리즈’는 6월을 제외하고 모두 6차례 진행된다.

금호갤러리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전 선정 작가 지원전을 개최한다. 선정 작가는 전영범, 사진강, 이재호, 이선희, 임현재, 주성범, 성혜림, 신민석, 정해미, 김동우씨다.

한편 유스퀘어문화관은 ▲2013년 피아니스트 손열을 등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가 참여한 개관 5주년 기념음악회 ▲메세나 대상 문화경영상 수상 ▲광주연극협회와 MOU 체결로 광주학생연극제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광주 14세 페스티벌 유치광주 ▲파격 전시 안사우덕 사진전 등을 10대 뉴스로 꼽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2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 약, 흥 삼 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